

##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수요예배와 토요새벽예배는 온라인 예배 진행됩니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21년 부활절 일정  
3월 28일 - 종려주일, 주일 예배 중 성찬식  
3월 29-4월 3일 - 고난주간  
4월 4일 - 부활주일

일자	주일1부	주일 2부	친 교	안 내
03/14		송명건		
03/21	박명자	송 섭		

##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주일예배(2부)	주일 오전 11시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30분	본당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주일학교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중고등부 예배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9시 30분	성가대실
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새 가족반	주일 예배 후	1층 친교실

## 이번 주 설교

본문: 마가복음 2장 13~17절    제목: 죄인 레위 이야기

기도제목: 1. 정죄의식을 내려 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 나 또한 죄인임을 깨닫고 늘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 들어가는 말

예수님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매국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칭할 때에는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세리와 죄인 두 명이 아니라, 하나의 관용어구처럼 세리하면 죄인이고 죄인하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보다 더 배척과 미움을 받았던 자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보다 더 미움을 받았던 자들이 바로 그 당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세리 마태는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합류하게 됩니다.

### 1. 바리새인들의 지적

그 때 바리새인 중의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사실 불만이 있으면 예수님께 직접 따지면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비겁했습니다. 예수님께 따지지도 못하고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따졌습니다. 왜 너희 스승은 저런 쓰레기와 같은 죄인과 함께 먹고 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은 사실 레위 마태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소리를 레위를 비롯한 다른 세리와 죄인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 때 집 주인인 레위 마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집주인이 왕입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내면 됩니다. 너 당장 나가! 내 눈 앞에서 사라져! 속 시원하게 쏘아붙이면서 쫓아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레위 마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 바리새인의 말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마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말이 맞다! 그리고 괜히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것 같아서 무척이나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17절에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못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5장 31~32절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2.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안다! 저들이 죄인인 것을 나도 안다! 그런데 나는 의사다! 1~2장에 진중적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는 의사인데, 의사는 병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만 건강할 자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오셔서 늘 가까이 했던 자들이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죄인들의 친구라고 별명을 지어 붙였습니다. “죄인들의 친구” 이 표현은 예수님을 조롱하려는 표현이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 3. 정죄의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가운데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죄의식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죄문화가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뉴스 보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얼마나 싸우는지! 만나면 싸우고 미움과 증오심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그들이 지적하는 죄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지적해야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그 죄인을 살릴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레위 마태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죄인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회개시킬 수 있을까? 바로 이 차이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였습니다.

### 나가는 말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는 정죄의식이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인임을 지적만 해서 안 됩니다. 지적만 하고 그 다음이 없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낫습니다. 이 시대의 죄인들은 누구까요? 동성애자들!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 물론 그런 자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를 또한 죄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수요예배(8시PM)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배와 찬양 여호수아서 강해 말씀: 정요한 목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 송영 Invocation	사회자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예수 우리 왕이여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1번 (시편28편)		
찬 송 Hymn	204장(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기 도(Prayer)	1부: 안영남 권사 2부: 송명건 집사		
성 경 Scripture	마가복음 2장 13~17절		토요새벽기도회
설 교 Message	죄인 레위 이야기		빌립보서 강해
▲ 찬 송 Hymn	327장(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토요일 오전 6시 30분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교회 후원 선교사

김덕래, 김홍덕, 정철웅, 이상진,

교회 지원 단체

뉴욕 밀알선교단, 뉴욕 농아인 교회, 주님의 식탁  
한밀교회(한국)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호진 Paul Lee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45-25 162nd St Flushing NY 11358

Tel : (929) 225-0656 / www.mysaviorchurch.com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